

I. 선사문화와 고대 국가의 형성

주제 5) 고구려, 백제, 신라의 전성기

(교과서: p.30~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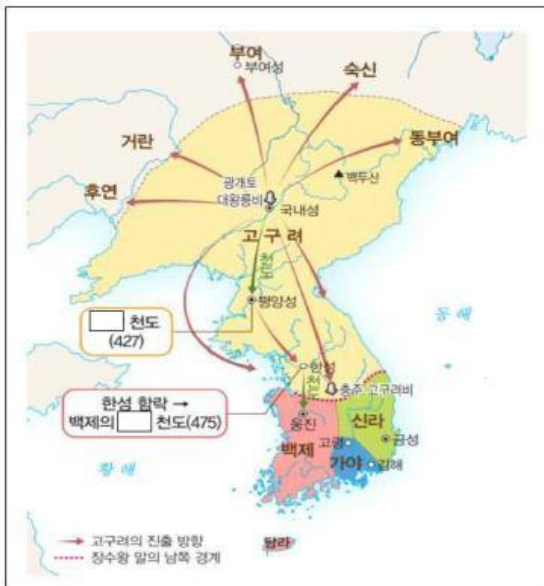
학 교	
학 번	
이 름	

1. 4세기의 삼국의 정세에 대해 알아봅시다.



- 1) ()의 전성기
 - ① ()의 즉위와 활동
 - ㉠ 왕위의 ()을 통해 왕권 강화
 - ㉡ ()의 전 지역을 병합하면서 전라도 지역 차지
 - ㉢ 고구려를 공격하여 황해도 지역 차지
⇒ ()을 전사시킴
 - ② ()때 백성들의 정신적인 통일을 도모하기 위해 동진으로부터 ()를 수용함
- 2) 고구려의 위기와 극복 노력
 - ① () 때 중국과 백제의 침입을 받아 위기
 - ② () 때 위기를 맞이한 고구려가 내정을 정비하고 국난 수습을 위해 노력
 - ㉠
 - ㉡
 - ㉢

2. 5세기의 삼국의 정세에 대해 알아봅시다.



- 1) ()의 전성기
 - ① ()의 즉위와 활동
 - ㉠ 중국의 혼란기를 틈타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
 - ㉡ 백제를 공격하여 () 차지
 - ㉢ 신라에 침입한 백제, 가야, 왜의 연합군을 격퇴하고 가야로 들어가 전기 가야 연맹을 붕괴시킴
 - ② ()의 즉위와 활동
 - ㉠ 기존의 귀족세력 견제, 왕권 강화 및 영토 확장을 위해 ()에서 ()으로 수도를 옮김
 - ㉡ ()의 실시
 - 중국 북조에 통일된 국가 수립으로 북쪽에서의 영토 확장이 어려워짐
 - 고구려의 ()으로 백제와 신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자 동맹을 체결()
 - ㉢ ()의 실시를 통한 독자적인 세력 확립

2) 백제의 위기와 극복 노력

① 백제의 위기

㉞ 고구려 ()의 영토확장 정책인 ()이 본격화되면서 백제와 신라에 대한 공세가 강화 ⇒ 백제와 신라는 ()을 통해 고구려 견제

㉟ 하지만 막강한 고구려의 침입을 받게 된 백제는 수도를 상실하여 ()으로 천도하고, 한강 유역 상실

② ()으로 천도한 백제의 상황

㉞ 당시 고구려에게 패한 뒤 수도를 옮긴 백제의 정치적 혼란이 가중

㉟ 천도 이후 왕이 신하에게 피살되는 등 왕권이 크게 약화되었고 내분이 심화됨

③ 백제의 위기 극복 노력

㉞ 동성왕 : 혼인을 통해 신라와 동맹을 강화, 신진 세력을 등용하여 귀족 세력을 견제

㉟ ()

◦ 농업 생산을 독려하여 경제적 안정 이룩

◦ 지방에 특수행정구역인 ()를 설치하여 ()을 파견하여 지방 통제 강화

◦ 중국 남조의 ()나라와 친선관계(증거:)

3. 6세기의 삼국의 정세에 대해 알아봅시다.

1) 고구려의 위기

① 왕위 계승을 둘러싼 귀족들간의 다툼이 심화되면서 왕권이 크게 약화됨

② 백제와 신라의 공세가 심해지면서 ()유역을 빼앗김

③ 북쪽의 ()의 성장으로 고구려 국경을 위협

2) 백제 ()의 국력 회복 노력

① 수도 천도 : () → ()

② 국호를 ()라 고치고 부여 계승 의식 표방

③ 노리사치계를 통해 일본에 불교를 전파하는 등 일본과의 친선을 위해 노력

④ 신라의 ()과 함께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유역을 공격하여 차지

㉞ 신라의 배신으로 한강유역을 상실하자, 대군을 이끌고 신라를 공격

㉟ ()에서 신라의 기습으로 공격이 실패하고 ()도 전사

3) 후기 가야 연맹의 성장

① 고구려 ()의 가야 침공 이후 전기 가야 연맹의 맹주였던 ()의 세력이 쇠퇴하고, ()가 후기 가야 연맹의 맹주로 부상

② 당시 ()는 합천 지역을 병합하고 소백산맥을 넘어 섬진강 일대로 세력 확대

③ 섬진강을 통해 중국 남조, 왜와의 활발한 교역 시도

④ 고구려에 대항하여 백제, 신라와의 군사 동맹에도 참여하며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



가야 연맹의 변화

4) 신라의 전성기

(※ 아래 왕들의 업적을 드래그해서 왕의 이름 옆에 드롭하세요)

지증왕		 6세기 신라의 영토 확장
법흥왕		
진흥왕		

- 우경의 실시
- 이사부를 통해 우산국 정벌
- 최초로 왕이라는 왕호 사용
- 금관가야 정복
- 병부의 설치
- 골품제도 정비
- 4개의 순수비 건립
- 관산성 전투에서 승리
- 한강유역 탈환
- 대가야 정복
- 화랑도를 국가기구로 정비
- 단양 적성비 건립
- 이차돈의 순교로 불교 공인
- 율령의 반포
- 순장의 금지
- 우경 실시